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 깊은 곳이, 단순히 호수의 깊은 곳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그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가, 깊은 곳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알려주는 곳에만 그물을 던졌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놀랍게도 주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원하던 만선을 이루었는데,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이 장면 앞에서 오래 멈추게 됩니다. 성공의 순간에, 왜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심리학에 인지부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눈앞에 벌어진 일이 서로 어긋날 때 마음이 몹시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없애려면 둘 중 하나를 바꿔야 합니다. 믿음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요.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성공은 분명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 기준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분은 대체 누구시길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살아가는 모습은 다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남을 밟고서라도 앞서려고 때로는 추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안의 인지부조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평생 붙잡고 산 그 가치대로 원하는 걸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를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 채움은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게 이거였느냐.

평생 이걸 좇으며 살아온 네 삶이 지금 네 눈앞에 다 쌓여 있다.

그런데 너, 지금 기쁘냐.’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서 자기 삶의 목적이 그동안 성공에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성공의 순간에 가장 깊은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믿고 살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 그건 결코 기쁜 일이 아니니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은 부자 어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건 도망가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마주한 사람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순간 베드로는 결단합니다. 배도, 그물도, 그 많은 물고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나섭니다. 인지부조화는 그냥 두면 불안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그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마주하면, 그건 회개가 됩니다. 회개란 내가 사는 방식과 내가 믿는 것 사이의 틈을 더는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 곧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다가옵니다. 지금 내 그물은 어디에 던져져 있습니까. 세상이 알려주는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깊은 곳입니까. 잠깐 멈추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든, 인정이든, 성취든 좋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정말 원하는 게 이거였습니까.’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려놓고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나설 수 있을 겁니다.